

The development consists of a new housing scheme comprising of 47 dwellings and a street level community facility in the historic Liberties area of Dublin. The development proposed to provide scale, identity and a piece of living city, which connects new development in the area to the historic character of the Liberties.

Dublin City Council were anxious to produce an exemplar residential social housing development in the area. The brief was set out by Dublin City Council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needs of the local and new residents.

The project was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Coombe Bypass. A back land site was opened up, and the urban design requirement was for a new street frontage to heal the wounds caused by the road engineering operation. A new urban corridor of apartments over retail along Cork Street was developed with the demolition of existing social housing pockets and the need for new social housing emerged to relocate resi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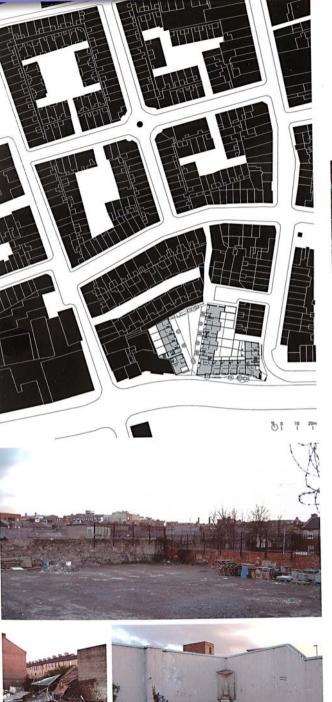
The scheme works between the six story scale proposed in general along the new Cork Street corridor and the smaller scale of the existing houses behind the site. The new buildings are in brick, with hardwood windows and screens to terraces and roof gardens. The windows are offset from each other in the walls to work with the complexity of the residential accommodation within, and to emphasize the continuity of the brick surface. The walls are modulated with recessed porches and terraces and projecting bay windows to give a depth and complexity to the building's edge and an interface between the private world of the house and the neighborhood. The building cranks along the street line with landscaped planters and steps at ground level to allow some privacy to those units accessed from the street.

The main social/play space of the scheme is the triangular courtyard which provides a secure space via the passive surveillance from the adjacent apartments. This space is further animated by the window seats at the ground level, recessed balconies and projecting winter gardens above.

The scheme opens up two new pedestrian routes through the main courtyard and the grotto at the east end of the building which knit into the surrounding urban fabric, re-making connections through the urban fabric which were extinguished by the Coombe Bypass road engineering scheme.

Brick and timber are the main materials used, echoing the existing housing and industrial buildings in the area and the former use of the site as a timber yard. The building is an in situ concrete structure with a brick skin, a typical cavity construction. The concrete structure allowed the openings in the facade to be offset from each other and also enabled a greater flexibility with apartment layouts by stepping the internal party walls vertically. The window openings recess a full brick, giving the openings as greater sense of depth. All openings have solid hanging brick lintels and brick sills to create an illusion of punching through the brick facade. The courtyard is paved in a carpet of brick to match the facade. Iroko timber windows and timber screens are left untreated.

O'Donnell+Tuomey







대통단의 역사 깊은 지역 중 하나인 리버티즈에 47째의 주택과 주변 거리의 공공 서설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는 살아있는 도시의 규모와 정체성뿐 만 아니라, 역사적인 지역 리버티즈에 새로운 개발의 비람이 불고 있음 보여준다. 더블린 시의회는 이 지역에 모범이 되는 공공 지원 주택을 건설하고 싶어했다. 이 에 따라 시의회가 직접 지역인들과 새로운 거주자들의 요구를 담은 지침서를 준비 하고,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했다.

프로젝트는 쿰 우희도로 공사에서 시작되었다. 공사 현장의 뒤쪽은 완전히 개방 됐고, 새로운 거리 정면으로는 도로 공사로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도시 계 확이 필요했다. 코크 거리를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의 새로운 도시 회랑은 기존의 공공 주택이 붕괴되면서 거주자들이 새로운 공공 주택을 필요로 하면서 개발되 기 시작했다.

주택 단지는 6층 짜리 건물과 주변 건물 규모와 비슷하거나 높이가 조금 더 낮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벽돌로 된 건물에는 단단한 목재 창틀과 가리개가 있는 테라스, 옥상정원이 함께 있다.

주거 공간이 복잡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창문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곳곳에 움푹 들어간 곳에 설치된 현관과 테라스가 벽의 느낌을 너무 갑갑하지 않게 조절해주고, 건물의 가장자리에는 김이감을 주기 위한 돌출된 창을 만들었다. 돌출된 공간은 집 내부의 사적 공간과 외부 공간이 만나는 연결교리가 된다. 건물의 전체적인 선은 거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는 1층에 설치된 계단과 화단이 거리로부터 건물을 분리시켜 건물 내에 충분한 사생활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건물로 돌려싸인 삼각형 모양의 안뜰은 간접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놀 이터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이 된다. 더욱이, 1층 창가에 마련된 자리들이며, 벽 안쪽으로 우묵하게 들어간 발코니나 뛰어나온 발코니에 만든 겨울 정원은 이곳을 더욱 활기 뛴 공간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이 공공 주택은 중심 뜰과 동쪽 끝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상을 지나 들어올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생겼다. 길은 도시구조와 잘 어우러져, 우회도로 공사로 망가졌던 도시 조직 구성에 새로운 연결교리가 되어주었다.

건물에 사용한 주요 자재는 벽돌과 목재로,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목재 창고와 주 변의 집, 산업 건물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에 벽돌로 옷을 입힌 것인데 콘크리트 구조 덕분에 창문으로 이용될 구멍들을 벽면에 어긋나게 배치하 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내부 벽을 수직적으로 세우면서 건물의 배치를 훨씬 유통 성있게 할 수 있었다.

창문은 벽돌 하나만큼 안으로 움푹 들어가 놀라운 깊이 감을 선보인다. 모든 창문에는 벽돌로 된 단단한 상인방이 달렸고, 벽을 뚫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벽돌 창 문턱도 설치되었다. 안뜰 역시 건물과 어울리도록 바닥을 벽돌로 덮었다. 이로코 나무 창과 나무 막대로 만든 가림막은 다른 가공을 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

오도낼 앤 뚜오메이





